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Media Education and the Media Literacy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이원섭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Wonsup Lee(wslee2121@gmail.com)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결과,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도 진실 추구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 중에서 산업적 동기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활용 능력은 체계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표현은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에 영향을 주었다. 수용자는 개방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미디어 언어는 진실 추구성, 개방성, 객관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청소년 | 미디어 교육 | 미디어 리터러시 | 비판적 사고 성향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media education and the media literacy,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media rightly. In the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the experience of media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specially, the experience of media education in school influences all constituents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ositively and the experience of media education in home also does the constituents except for only truth-seeking positively. The industrial motivation, one of factors of the media literacy, has influence on all constituents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the technical use ability, one of them, does the constituents except for systematicity. And inquisitiveness, objectivity, systematicity, and self-confidence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re affected by the self-expression of the media literacy. The media audience factor has open-mindedness, systematicity, and self-confidence of the disposition, and the media language factor does truth-seeking, open-mindedness, and objectivity.

■ keyword : | Youth | Media Education | Media Literacy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 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해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미디어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1]. 그러나 미디어는 세상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기 보다는 일부만 보여주거나 왜곡하여 보여 준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에 의해 재현된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믿을만한 것이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가 필요하다.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은 미디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분별하여 대안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교육이다. 특히,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 교육의 결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이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은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기본권의 일부이며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2].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지식보다는 정보를 찾아내는 수행 과정과 탐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현상을 파악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3]. 비판적 사고는 정보와 쟁점의 분석을 통해 이치에 닿도록 하는 내적인 인지 과정으로 어떠한 정보를 믿어야 할지 또는 믿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합리적·반성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지식과 기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와 성향을 갖추어야 한다[4].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교

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지기 마련이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 교육의 대표적인 대상인 청소년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특성 때문이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및 TV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PC 및 태블릿PC 이용시간도 많다. 반면에 라디오 및 종이신문과 같은 전통 미디어의 이용시간은 매우 적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매체가 스마트폰(50.2%)과 PC/노트북(32.4%)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시적인 소통 수단을 넘어 현 세대의 주요한 의사소통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5]. 청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둘러싸여 성장해 온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들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어 비판적인 사고로 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정규 교과외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규 교과 수업에서 미디어 교육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사회과, 국어과, 과학과 등이다.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는 '인터넷(49.8%)'이 가장 많고, 방송(24.0%)과 신문(12.5%)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영화나 SNS의 활용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실시하는 미디어 교육 영역은 미디어 내용 활용(48.4%), 미디어에 대한 이해(23.0%), 미디어 기능 활용(16.4%)에 치우쳐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표현이나 미디어 내용 비평 영역은 낮았다[52]. 이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규 교과외 보조 학습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교육적 목적인 비판적 사고의 신장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중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와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각 영

역과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확장

1.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최근 미디어 교육 영역 전반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처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가 내려진 것은 1992년全美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 컨퍼런스(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에서였다.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여러 형태의 미디어에 접근(access), 분석(analyze), 평가(evaluate), 생산(produce)하는 것”으로 정의했다[6]. 영국 오프콤(Ofcom)은 “다양한 미디어 맥락 속에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를 이해(understand)하며 창의적으로 제작(create)하는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에 대한 이미지, 음성, 메시지의 영향력에 접근, 분석, 평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미디어는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인쇄 미디어, 인터넷은 물론 새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한다[2].

미디어 리터러시가 실천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Media Literacy)는 ‘접근’, ‘분석과 탐구’, ‘평가’, ‘표현과 창조’, ‘참여’ 등과 같은 핵심어써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유사하게 미국 미디어 교육 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에서도 ‘접근’, ‘분석’, ‘평가’, ‘소통’ 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7][8]. 이처럼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조직 및 기

관이 있지만, 이들이 정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는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및 요소에 대한 논의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수용자 개인 차원’에 집중된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마르츠(H. Martens)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에 대한 분석, 평가, 생산할 수 있는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9]. 지식과 기술의 측정이 기본적으로 수용자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는 개인 차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청자 권익 위원회(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평가 체계를 개인적 기술(individual skills)과 환경적 요소(envrionmental factors)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를 더 세분하면 개인적 기술에는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활용, 비판적 이해, 소통능력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술적 활용과 비판적 이해는 개인적 능력으로, 소통능력은 사회적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 요소에는 미디어(휴대폰, 라디오, 신문, 인터넷, TV, 영화 등) 접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환경(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시민 사회, 미디어 산업 등)이 포함된다[10].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인적 차원의 논의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비판적 능력’이다. 안정임·서윤경·김성미[11]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는 미디어에 대한 이용 능력과 미디어로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자 개인의 비판적 능력을 강조했다.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메시지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미디어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미디어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2].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여 수용자의 선택적 이용이 중요해진 현재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핵심은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미디어 리터러시의 확장 혹은 재개념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의 폭발적인 보급과 이용의 일상화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단지 정보 소비자에 머물렀던 미디어 이용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생산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보 소비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 활용되면서, 특히 정보의 생산 영역에서 생산자와 수용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 즉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은 창조적 표현과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13][14].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소비는 사회적 행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문화적 또는 사회적 재화의 일종으로 링크와 댓글이 교환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디어 소비의 차이가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른 미디어 접근의 차이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제는 활용되는 정보의 유의미성 차이가 관련이 있다[15]. 즉 정보의 소비 여부가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는가가 미디어 이용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 테크놀로지 환경의 변화, 특히 최근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러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재개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5-19].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이 특히 요구된다. 즉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이를 새롭게 가공 및 편집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과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버킹엄(Buckingham) 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활용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속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미디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의 출현은 당연하게도 그 구성 요소의 변화를 가져왔다. 첸·우·왕(D. T. Chen, J. Wu & Y. M. Wang)은 뉴미디어의 기술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재해석하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기능적 소비(functional consuming), 비판적 소비(critical consuming), 기능적 프로슈밍(functional prosuming), 비판적 프로슈밍(critical prosuming) 능력 등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기능적 소비'는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고 텍스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고, '비판적 소비'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능적 프로슈밍'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고, '비판적 프로슈밍'은 개인들의 미디어 참여 활동 중 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맥락적 해석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네 가지 능력 중에서 비판적 프로슈밍 능력이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1].

한편 린·리·땡·리(T. B. Lin, J. Y. Li, F. Deng, and L. Lee,)는 첸·우·왕(D. T. Chen, J. Wu & Y. M. Wang)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비 기술(consuming skill), 이해(understanding), 분석(analysis), 통합(synthesis), 평가(evaluation), 프로슈밍 기술(prosuming skill), 유통(distribution), 생산(production), 참여(participation), 창조(creation) 등 10가지 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22].

우리나라에서는 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가 디지털 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으로 도구적 이용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등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3].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공유와 의미의 확산까지 포함된, 즉 재개념화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는 공공의식, 참여

성, 관용성 등과 같은 미디어와 관련된 시민성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14][20][24][25]. 또한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18][26-28]. 이처럼 최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이용자 특성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비판적 사고의 개념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가 강조된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 중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다양한 관련 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결론에 이른 미국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의 정의다. 이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는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며, 동시에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증거, 개념, 방법론, 준거, 맥락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다[29].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자료에 제시된 주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의 내용이 옳은지까지도 판단한다. 비판적 사고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30].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차원인 ‘비판적 사고 기술(critical thinking skill)’과 정의적 차원인 ‘비판적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으로 대별된다. 비판적 사고 기술은 인지적 차원의 영역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목적 지향적이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성향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이나 습관, 태도 및 정서적 성향을 의미한다[4]. 따라서 비판적 사고 기술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 독립적이며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모두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비판적 사고 성향에 대한 고찰이 없이 비판적 사고 기술

만을 평가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불완전하고 왜곡된 분석을 초래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비판적 사고의 태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판적 사고 상황에서 그 사고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성향이다[31][32]. 따라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기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판적 사고 기술과 비판적 사고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술과 사고 성향 간에 정적 상관이라는 연구[33-36]와 유의한 상관이라는 연구[37][38]가 혼재한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흔히 비판적 사고가라고 한다. 이들은 사고 과정에서 여과 장치를 설정하고, 그 여과 장치를 통하여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며, 불확실한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근거를 가지고 진실성을 밝히고자 하며, 정보, 주장, 경험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접근한다[39]. 또한 비판적 사고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열린 마음은 깊은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과 편견을 경계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40]. 이처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사고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주장하는 데에도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 상황에서 사고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비판적 사고 성향이다. 이에 관련 연구자들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미국철학회의 델파이보고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를 19가지로 제안하였다. 이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탐색함, 일반적으로 정보를 잘 습득해 놓으려함, 비판적 사고 기술을 사용할 기회에 대해 민감함, 합리적인 탐구의 과정에 대해 믿음, 자신의 추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 있음, 세계의 다양한 관점과 견해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음, 대안과 의견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함, 추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 자기 자신의 편견·왜곡·전형성·자기 중심적 또

는 사회 중심적 경향을 직면하는 정직성을 가짐, 판단하거나 보류하거나 바꾸는 데 있어서 신중성, 정직한 반성(사고)이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하면 자신의 견해를 기꺼이 재고하거나 수정함, 질문이나 관심을 명료하게 진술함, 복잡한 것을 다룸에 있어 질서 정연함, 적절하게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부지런함, 증거를 선별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합리적임, 관련주제에 주의 집중함, 사고 과정 중에 당면하는 어려움을 견뎌냄, 주제나 상황이 허용하는 한 정확성을 추구함 등이다 [29][41][42]. 이러한 수많은 하위 요소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자 파시온·파시온·산체스(N. C. Facione, P. A. Facione & C. A. Sanchez)는 비판적 사고 성향 요소를 진실추구성, 개방성, 분석성, 체계성, 비판적 사고의 자신감, 탐구성·호기심, 성숙성 등 7가지로 줄였다 [34].

국내 연구진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구성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허경철·김홍원·임선하·김명숙·양미경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를 건전한 회의성, 지적 정직성, 객관성, 체계성, 철저성 등 5가지로 제시했다[32]. 김명숙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를 이보다는 많은 8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성, 사고의 신중성,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근거 확인 또는 합리적 정확성 추구, 사고의 개방성, 사고의 공정성 및 독립성, 지적 호기심 또는 끈기, 사고의 자기 규제성이다[41]. 한편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은 국내의 비판적 사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를 추출해 진실 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을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로 정리하였다[4]. 이처럼 비판적 사고 성향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3.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의 관계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범람과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 증가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와의 관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의 강조와 함께 현실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미

디어라는 인식이 바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메시지 의도와 구조를 분별하고, 메시지 생산자가 특유의 가치와 관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인지하고, 메시지를 유사한 콘텐츠와 비교·대조할 수 있고, 메시지에서의 정보 누락을 감지하고, 메시지 생산자의 목적과 목표로 하는 수용자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높여 줄 수 있다[43].

이처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술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디어 메시지를 평가하는 데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미디어 메시지의 의미를 더 깊게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고, 미디어에 비판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미디어의 영향력을 알 수 있고, 미디어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44][45].

한편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의 관계를 살펴본 그 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비판적 사고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6][47].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이 길수록 미디어 분석 능력과 비판적 사고 기술이 높았으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분석, 평가, 추론 등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미디어 기능을 이해하고, 미디어 언어를 부호화하고 해독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즉 비판적 사고 기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국내외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판적 사고 기술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비판적 사고 성향을 어떻게 기를지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개념적 접근의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48][49]. 한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효과에 주목한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미디어를 학습도구의 관점에서 접근해 미디어 활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나[12], 본 연구에

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반성적으로 해독하고 비판적으로 선택하여 자신만의 기술을 구성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중 특히 비판적 사고 성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 성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 한다. 이에 앞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 경험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논의의 풍부성을 더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동시에 작용했을 경우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 역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연구대상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재학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는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 임의

표집을 선택했다. 연구자가 임의로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중학교는 남녀 공학이 1개, 남자 중학교 1개, 여자 중학교 1개였다.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 2개, 남자 고등학교 1개, 여자 고등학교가 1개였다. 이들 학교는 지리적 환경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학교에 연락을 취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 기간은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였고, 최종 수집된 응답자는 883명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응답 질문지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것을 제외해 최종 분석에 투입된 응답자는 총 859명이다. 여기서 중학생은 총 350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이 179명, 여학생이 171명이었다. 고등학생은 총 509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이 285명, 여학생이 224명이었다. 최종 분석에 투입한 데이터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 21.0'으로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의 개발과 신뢰성

2.2.1 미디어 교육 경험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된 시스템이 아니었고, 몇몇 교사들의 노력에 따라 개별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허락된 소수의 수혜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51].

이러한 미디어 교육 현실 속에서 '미디어 교육 경험'의 측정도구는 '학교 미디어 교육 경험'과 '가정 미디어 교육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미디어 교육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안정임[19]이 개발한 3개 문항("나는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편집 등에 대한 미디어 제작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미디어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네티켓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에 1개 문항("나는 신문활용교육이나 신문제작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을 추가해 개발했다. '가정 미디어 교육 경험' 측정 문항은 안정임·김양은·박상호·임성원의 측정 문

항[46]과 배상률·김형주·성은모의 측정 문항[5]을 참고해 8개 문항(“나의 부모님은 게임·컴퓨터 이용에 있어서 시간 제한을 하신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게임·컴퓨터를 하면 어떤 것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나의 부모님은 꼭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게임·컴퓨터를 못하게 하신다”, “나의 부모님은 게임·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부작용 등)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나는 부모님과 신문읽기 도서 읽기와 관련하여 자주 대화한다”, “나는 부모님과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하여 자주 대화한다”, “나는 부모님과 게임·컴퓨터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대화한다”, “나는 부모님과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대화한다”)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12개 문항들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2.2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영역으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이들 척도는 선행 연구[19][50]의 측정 문항을 연구자가 ‘구성 타당도’ 등을 고려해 구성하였다. 먼저 여기서 ‘미디어 활용 능력’은 ‘기술적 활용 능력’을 의미하고 이는 8개 문항(“나는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다룰 수 있다”,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음악/영상/게임/만화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각종 거래를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내게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이용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비판적 이해 능력’은 다시 ‘현실 구성’, ‘수용자’, ‘산업적 동기’, ‘미디어 언어’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현실 구성’은 3개 문항(“나는 미디어가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갖게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 현실을 재구성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용자’는 3개 문항(“나는 미디어가 궁극적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디어가 소비문화를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문사나 방송사 등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미디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적 동기’는 2개 문항(“나는 같은 메시지도 TV,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같은 내용도 이미지, 배열, 편집 기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언어’는 2개 문항(“나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같은 내용의 메시지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디어 내용이 주요 이용 대상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표현 능력’은 ‘자아 표현’을 의미하고 이는 4개 문항(“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용 소프트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제작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소통 능력’은 온라인 공간 등에서의 ‘참여성’을 의미하고 이는 6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의 온라인 공간에 올린다”, “나는 다른 사람의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남긴다”, “나는 관심이 있는 글이나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유한다”, “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다”, “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하여 댓글로 남긴다”, “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이나 정보를 공유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총 28개 문항 역시 모두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한편 ‘소통 능력’은 온라인 공간 등에서의 ‘참여성’을 의미하고 이는 6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의 온라인 공간에 올린다”, “나는 다른 사람의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남긴다”, “나는 관심이 있는 글이나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유한다”, “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다”, “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하여 댓글로 남긴다”, “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이나 정보를 공유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총 28개 문항 역시 모두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2.3 비판적 사고 성향

여기서 ‘비판적 사고 성향’을 위한 측정도구는 ‘진실 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36]이 개발해 검증한 것을 원용하였다. 먼저 ‘진실 추구성’은 10개 문항(“만일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확실하다면 기꺼이 인정한다”,

“내 생각이 틀리다는 증거가 있다면 내 생각을 바꾼다”, “나는 친한 친구의 말이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의견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해서 설득한다”, “나는 널리 알려진 주장이라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생각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찾는다”, “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한다”, “나는 어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어떤 논의에서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으로 구성하였다.

‘개방성’ 역시 10개 문항(“나도 편견(어떤 것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태도)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둘 중 한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주장이라고 해도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교육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흥미가 있다”,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으로 구성되었다.

‘탐구성’도 10개 문항(“나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알고 싶다”,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계속 해서 배우고 싶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질문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알게 될 때까지 노력한다”, “내가 모르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밝히는 것이 즐겁다”,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싶다”, “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이들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이었다.

‘객관성’ 역시 10개 문항(“나는 확실한 증거의 유무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증거나 정보를 수집한다”,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정확한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의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근거가 확실한 의견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 생각해 본다”, “모든 신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믿을만한지 알아본 후 자신의 주장을 밝혀야 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체계성’도 10개 문항(“사람들은 내가 논리적이라고 한다”, “나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나는 생각들을 쉽게 체계화한다”, “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한다”, “나는 생각들을 잘 조직할 수 있다”,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복잡한 질문에 대해 순서를 정해서 생각하기를 잘한다”, “나는 생각을 잘 정리한다”, “나는 순리대로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나는 논리적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생각한다”)이었다.

자기 신뢰성’ 역시 10개 문항(“나는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한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내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 자신의 추론능력(문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믿는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나에게 부탁한다”, “나는 사물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내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창의적인 대안을 생각해내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총 60개 문항 역시 모두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한편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값으로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0.66~0.94로 우수한 수준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은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의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변인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 수	신뢰도 계수	
미디어 교육 경험	학교 미디어 교육	4	.80	
	가정 미디어 교육	8	.83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활용 능력	기술적 활용 능력	8	.84
	비판적 이해 능력	현실 구성	3	.73
		수용자	3	.75
		산업적 동기	2	.80
		미디어 언어	2	.66
	창의적 표현 능력	자아 표현	4	.81
	소통 능력	참여성	6	.90
비판적 사고 성향	진실 추구성		10	.79
	개방성		10	.90
	탐구성		10	.92
	객관성		10	.93
	체계성		10	.94
	자기 신뢰성		10	.93

주: 제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값임.

IV. 연구결과

1. 미디어 교육 경험,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성향의 특성

[표 2]는 이 연구의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미디어 교육 경험'에서는 '가정 미디어 교육 경험의 평균이 2.81점으로 '학교 미디어 교육 경험'(2.72점)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 영역에서는 '기술적 활용 능력'이 평균 4.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적 동기'(3.82점), '미디어 언어'(3.72점), '자아 표현'(3.64점), '현실 구성'(3.38점), '수용자'(3.34점), '참여성'(3.09점)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는 '개방성'이 평균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객관성'(3.67점), '진실 추구성'(3.62점), '탐구성'(3.60점), '자기 신뢰성'(3.32점), '체계성'(3.26점)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즉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을 학교에서의 경험보다 더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는 기술적 활용 능력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는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 미디어 교육 경험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각 영역에 대해서 미디어 교육 경험의 각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이 [표 3]이다. 먼저 '학교 미디어 교육 경험'은 '진실 추구성'(β=.11, p<.01), '개방성'(β=.12, p<.01), '탐구성'(β=.15, p<.001), '객관성'(β=.18, p<.001), '체계성'(β=.22, p<.001), '자기신뢰성'(β=.20, p<.001) 등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가정 미디어 교육 경험'은 '진실 추구성'(β=.04, p>.05)을 제외한 비판적 사고 성향 영역인 '개방성'(β=.08, p<.05), '탐구성'(β=.14, p<.001), '객관성'(β=.10, p<.01), '체계성'(β=.20, p<.001), '자기 신뢰성'(β=.2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의 기술 통계

변인		평균(점)	표준편차	
미디어 교육 경험	학교 미디어 교육	2.72	1.00	
	가정 미디어 교육	2.81	.80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활용 능력	기술적 활용 능력	4.16	.68
	비판적 이해 능력	현실 구성	3.38	.79
		수용자	3.34	.78
		산업적 동기	3.82	.80
		미디어 언어	3.72	.78
	창의적 표현 능력	자아 표현	3.64	.98
	소통 능력	참여성	3.09	1.05
비판적 사고 성향	진실 추구성		3.62	.48
	개방성		3.85	.61
	탐구성		3.60	.69
	객관성		3.67	.68
	체계성		3.26	.71
	자기 신뢰성		3.32	.70

주: 사례수는 859명임.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표 3. 미디어 교육 경험과 비판적 사고 성향

구분	진실 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β	t	β	t	β	t
상수		51.58		41.54		31.93
학교 미디어 교육	.11**	3.09	.12**	3.36	.15***	4.38
가정 미디어 교육	.04	1.12	.08*	2.13	.14***	4.00
R ²	.02		.03		.06	
F	7.05**		11.02***		25.02***	
구분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	
	β	t	β	t	β	t
상수		33.76		25.21		26.09
학교 미디어 교육	.18***	5.12	.22***	6.54	.20***	6.05
가정 미디어 교육	.10**	3.00	.20***	5.87	.22***	6.50
R ²	.05		.11		.12	
F	24.35***		54.89***		56.14***	

* p<.05, ** p<.01, *** p<.001

특히 ‘체계성’과 ‘자기 신뢰성’에 대한 ‘미디어 교육 경험’의 설명력은 각각 11%와 1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도와 대화를 통한 미디어 교육 경험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리터러시’의 각 요소가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 [표 4]다.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향력은 0.21~0.31로 나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각 요소별로 ‘비판적 사고 성향’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먼저 ‘진실 추구성’에 대해서는 ‘산업적 동기’($\beta=.22$, $p<.001$), ‘기술적 활용 능력’($\beta=.21$, $p<.001$), ‘미디어 언어’($\beta=.13$, $p<.01$), ‘현실 구성’($\beta=.09$, $p<.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소의 ‘진실 추구성’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개방성’에 대해서는 ‘산업적 동기’($\beta=.30$, $p<.001$), ‘기술적 활용 능력’($\beta=.22$, $p<.001$), ‘미디어 언어’($\beta=.21$, $p<.0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수용자’($\beta=-.11$, $p<.01$)와 ‘참여성’($\beta=-.07$, $p<.05$)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소의 ‘개방성’

에 대한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탐구성’에 대해서는 ‘산업적 동기’($\beta=.19$, $p<.001$), ‘기술적 활용 능력’($\beta=.17$, $p<.001$), ‘자아 표현’($\beta=.14$,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소의 ‘탐구성’에 대한 설명력은 21%였다.

표 4.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성향

구분	진실 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β	t	β	t	β	t	
상수		18.73		12.64		9.56	
미디어 활용 능력	기술적 활용 능력	.21***	5.37	.22***	5.77	.17***	4.25
	현실 구성	.09*	2.34	.09*	2.39	.03	.83
비판적 이해 능력	수용자	-.03	-.73	-.11**	-2.67	-.03	-.72
	산업적 동기	.22***	5.08	.30***	7.09	.19***	4.26
	미디어 언어	.13**	2.68	.21***	4.68	.09	1.86
창의적 표현 능력	자아 표현	.04	.93	.04	1.03	.14**	3.45
소통 능력	참여성	.01	.33	-.07*	-2.08	.04	1.14
R ²	.24		.31		.21		
F	38.71***		54.55***		32.46***		
구분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		
	β	t	β	t	β	t	
상수		8.62		7.10		7.42	
미디어 활용 능력	기술적 활용 능력	.18***	4.68	.07	1.66	.11**	2.78
	현실 구성	.09*	2.32	.09*	2.49	.07	1.95
비판적 이해 능력	수용자	-.04	-1.01	.13**	3.14	.10*	2.33
	산업적 동기	.23***	5.37	.10*	2.23	.11*	2.58
	미디어 언어	.15**	3.37	.02	.43	.02	.46
창의적 표현 능력	자아 표현	.12**	3.08	.26***	6.22	.25***	6.09
소통 능력	참여성	-.01	-.41	.04	1.28	.03	.85
R ²	.28		.24		.24		
F	47.01***		38.31***		37.84***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객관성’에 대해서는 ‘산업적 동기’($\beta=.23$, $p<.001$), ‘기술적 활용 능력’($\beta=.18$, $p<.001$), ‘미디어 언어’($\beta=.15$, $p<.01$), ‘자아 표현’($\beta=.12$, $p<.01$), ‘현실 구성’($\beta=.09$, $p<.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요소의 ‘객관성’에 대한 설명력은 28%였다. ‘체계성’에 대해서는 ‘자아 표현’($\beta=.26$, $p<.001$), ‘수용자’($\beta=.13$, $p<.01$), ‘산업적 동기’($\beta=.10$, $p<.05$), ‘현실 구성’($\beta=.09$, $p<.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소의 ‘체계성’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자기 신뢰

성'에 대해서는 '자아 표현'(β=.25, p<.001), '기술적 활용 능력'(β=.11, p<.01), '산업적 동기'(β=.11, p<.05), '수용자'(β=.10, p<.05)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소의 '자기 신뢰성'에 대한 설명력 역시 24%였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 중 '산업적 동기'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구성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활용 능력'은 '체계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현실 구성'은 '진실 추구성', '개방성', '객관성', '체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표현'은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는 '개방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에 영향을 주었다. '미디어 언어'는 '진실 추구성', '개방성', '객관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참여성'은 '개방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성향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특히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은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도 진실 추구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 중에서 산업적 동기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모든 하위 영역에 영향을 주었고, 기술적 활용 능력은 체계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현실 구성은 진실추구성, 개방성, 객관성, 체계성에 영향을 주었다. 자아 표현은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에 영향을 주었다. 수용자는 개방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에 영향을 주었고, 미디어 언어는 진실 추구성, 개방성, 객관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성은 개방성에만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에 따라 비판적 사고 성향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학교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미디어와 관련한 비판적 읽기와 쓰기 능력은 물론 미디어 제작 등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는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지도 행위로도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이 비판적 사고 성향 요소 중 진실 추구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반대되는 결과일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특성의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미디어와 관련한 기술 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등 미디어 리터러시의 각 구성 요소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해 비판적 사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응답자를 늘린 후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계성을 밝히지 못했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미디어 교육의 결과로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 경험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 및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경험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성향 간의 관계를 밝혔으나 두 변인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지적 차원의 비판적 사고 기술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각 요소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실증적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는 향후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다양한 효과 검증에 활용될 수 있으며 미디어 교육 정책 마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영순, 박지선, “민주시민교육과 미디어 문화 리터러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1권, 제1호, pp.91-110, 2006.
- [2]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Final Report*, 2011.
- [3] 강승희, “한국 대학생을 위한 비판적 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인지적 모델과 학습자 주도의 루브릭 제작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34집, pp.169-190, 2013.
- [4] 조아미, 김정희, 설현수, 정재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명지대산학협력단*, 2009.
- [5]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 [6] P. Aufderheide, Aspen Media Literacy Conference Report - Part II: Proceedings and Next Steps, 1992. <http://www.medialit.org/reading-room/aspen-media-literacy-conference-report-part-ii>
- [7] <http://www.medialit.org/about-cml>
- [8] <http://namle.net/publications/media-literacy-definitions/>
- [9] H. Martens, “Evaluating media literacy education: Concepts, theori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Vol.2, No.1, pp.1-22, 2010.
- [10]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Final Report*, 2010.
- [11]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5권, 제2호, pp.161-191, 2013.
- [12] 이미나,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교육 수업사례 제안”, 시민교육연구, 제41권, 제3호, pp.139-181, 2009.
- [13] H. Postigo, “Questioning the web 2.0 discourse: Social roles, production, values, and the case of the human rights portal,” *The Information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27, No.3, pp.181-193, 2011.
- [14] N. Jenkins,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The MacArthur Foundation, 2006.
- [15] 박주연,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탐색적 연구: Jenkins의 참여문화 향상을 위한 ‘리터러시 핵심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1권, 제1호, pp.69-87, 2013.
- [16] 김아미,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한국방송학회, pp.7-19, 2008.
- [17] 김대희,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에 관한 연구: 미

- 디어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4권, 제1호, pp.477-500, 2006.
- [18] 권성호, 김성미, “소셜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재개념화: Jenkins의 ‘컨버전스’와 ‘참여문화’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제1권, 제1호, pp.65-82, 2011.
- [19] 안정임,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제7권, 제1호, pp.1-21, 2013.
- [20]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 검증: 세대 간의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6권, 제6호, pp.129-176, 2012.
- [21] D. T. Chen, J. Wu, and Y. M. Wang, “Unpacking new media literacy,” *Journal on Systemics, Cybernetics and Informatics*, Vol.9, No.2, pp.84-88, 2011.
- [22] T. B. Lin, J. Y. Li, F. Deng, and L. Lee, “Understanding New Media Literacy: An Explorative Theoretical Framework,”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Vol.16, No.4, pp.160-170, 2013.
- [23] 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이원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연구: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2호, pp.198-225, 2012.
- [24] 안정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의 핵심이슈”, *여성연구논총*, 제25집, pp.1-22, 2010.
- [25] P. Mihailidis and B. Thevenin, “Media Literacy as a Core Competency for Engaged Citizenship in Participatory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57, No.11, pp.1611-1622, 2013.
- [26] 오의경,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소고: 재정의,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 pp.385-406, 2013.
- [27] 조남익,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탐색적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4호, pp.93-111, 2012.
- [28] 김효숙, “페이스북을 활용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학습과학연구*, 제6권, 제2호, pp.20-38, 2012.
- [29] P. A. Facione,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s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Executive Summary “The Delphi Report”*, The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9.
- [30] 김명숙, 설현수, “Rasch 측정모형에 의한 K 비판적 사고 성향 검사의 양호도 검증”, *교육평가연구*, 제20권, 제2호, pp.101-124, 2007.
- [31] 최훈, “비판적 사고의 성향: 그 의미와 수업방법”, *철학탐구*, 제2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pp.91-117, 2008.
- [32] 허경철, 김홍원, 임선하, 김명숙, 양미경,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V)*, 한국교육개발원, 1991.
- [33] M. L. Colucciolo,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disposition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 conceptual model for evalu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13, No.4, pp.236-245, 1997.
- [34] N. C. Facione, P. A. Facione, and C. A. Sanchez,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3, No.8, pp.345-350, 1994.
- [35] J. Profetto-McGrath, “The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3, No.6, pp.569-577, 2003.
- [36]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한국

- 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37] 강승희, 김대현, “예비교사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108-119, 2006.
- [38] 신경림, 해주영, 김진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비판적 사고 기술에 관한 종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5권, 제2호, pp.382-389, 2005.
- [39] 김재형, “사회과에서의 비판적 사고력 교육”, *사회과교육*, 제29호, pp.39-63, 1996.
- [40] 성기산,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교육”,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3호, pp.155-172, 2010.
- [41] 김명숙,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의 개발 및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9권, 제1호, pp.89-117, 2006.
- [42] 이다정, *사회과 비판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평가 문항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3] R. Hobbs and R. Frost, “Measuring the acquisition of media-literacy skill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8, No.3, pp.330-355, 2003.
- [44] R. L. Duran, B. Yousman, K. M. Walsh, and M. A. Longshore, “Holistic Media Education :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a College Course in Media Literacy,” *Communication Quarterly*, Vol.56, No.1, pp.49-68, 2008.
- [45] F. Linde, “The necessity of a media literacy module within journalism or media studies curricula,” *Global Media Journal African Edition*, Vol.4, No.2, pp.1-15, 2010.
- [46] 안정임, 김양은, 박상호, 임성원, *미디어교육 효과측정 모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 2009 미디어교육 연구서, 한국언론재단, 2009.
- [47] 이화행, 이정기, “청소년기 NIE(Newspaper in Education) 경험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신문 이용 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4호, pp.456-488, 2011.
- [48] E. T. Arke, and B. A. Primack, “Quantifying media literacy: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measure,”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Vol.46, No.1, pp.53-56, 2009.
- [49] 이진남, “국내 비판적 사고 연구 동향에 대한 검토 I”,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3호, pp.269-299, 2012.
- [50]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인과 부모의 중재 행위, 아동의 이용조절 인식 간의 상관관계”, *언론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pp.161-192, 2013.
- [51] 이성균, 윤영두,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 온라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468-476, 2010.
- [52] 박진우, 황치성, 김기태, 설규주, 이영주, *한국의 미디어 교육: 현황과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저 자 소 개

이 원 섭(Wonsup Lee)

정희원



- 1990년 8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학사)
- 1998년 8월 :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석사)
- 2010년 2월 :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0년 1월 ~ 현재 : 한국언론진흥재단

<관심분야> : 미디어 교육, 미디어 산업